

대주, 유동성 확보 신용등급 상향 기대

건설부문 사업부지 매각 등 경영개선 순조

계열사, 협력업체 상생 획기적 개선책 마련

대주그룹이 최근 건설부문 사업부지 매각에 이어 대한화재 지분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유동성 1조원 확보가 가능하게 됐으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도 기대된다.

특히 그룹 정상화와 함께 주력사업으로 추진돼온 대한조선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동성 확보 노력과 신용등급 상향 기대**= 대주그룹은 올해 계열사인 대한화재 매각 등 일련의 자구노력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대주그룹은 지난 6일 대한화재 지분 56.98%(2천396만150주)를 호텔

롯데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주그룹은 3주간의 실사기간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20일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확보하게 된다.

대한화재는 1946년 설립된 증권 손해보험회사로 지난 9월말 기준 자산 규모가 1조1천300억원에 달하며, '하우머치'(HOW-Much)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자동차 보험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대한화재 매각으로 3천7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확보한 대주그룹은 올해 초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 개발이익을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3천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대주건설의 사업지인 인천 검단지구 2개 사업부지와 청라지구 1개 사업부지 매각을 통해 1천680억원을 마련했으며, 경기도 안성의 골프장 부지를 팔아 500억원을 조달했다.

그룹 관계자는 "여기에서 동두천 다이너스티CC와 동양상호저축은행 등 계열사 매각이 성사되면 2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와 신규 유동성 1조원 마련은 무난하다"면서 "유동성 확보와 함께 신용도가 제고되면서 그룹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들과 공생 강화**= 대주그룹은 협력업체들과의 공생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주그룹은 최근 허재호 회장 주재로 경영개선을 위한 그룹 임원단 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협력업체와의 관

계가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외부업체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인 대주건설 주재로 전문건설인협회 및 대주건설 협력업체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주건설 내에 협력업체 관계개선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그룹은 확보된 신규 유동성 자금으로 그룹차원의 부채비율을 줄여나가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대한조선 건설을 앞당겨 광주·전남 지역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대한조선은 현재 해남 화원반도 일대에 총 190만평 규모의 대형조선소를 건설중이며, 조선소 건립 총 투자 금액은 오는 2010년까지 2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자동차는 지난 7일 중국 연청시 위에다국제호텔에서 김익환 기아차 부회장을 비롯 중국내 대리점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동평위에다기아차대리점 회의'를 열고 판매 확대 등을 결의했다.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차 2010년부터 중국 판매 44만대로

장수성 연청시 연 30만대 규모 제2공장 준공

2009년 美·슬로바키아 등 100만대 생산체제

기아차가 중국에 연 3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두번째 공장을 완공,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략 발판을 마련했다.

기아차는 8일 중국 장수성 연청시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비롯해 람빠오화 장수성 서기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제2공장은 지난 2005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지 2년여만에 완공됐으며, 이를 위해 기아차는 동평 위에다기아차의 합작법인 동평 및 위에다와 공동으로 8억 달러를 투자했다.

프레스·차체·도장·조립·엔진공장 등 자동차 제작과 관련한 모든 과정이 이뤄지는 제2공장은 연산

13만대 규모의 제1공장에서 동남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147만㎡ 부지 위에 건평 27만㎡ 규모로 건설됐다.

기아차는 이 공장에서 지난 10월부터 세라토 중국형 모델을 본격 생산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세라토 5도어 모델을 추가 양산한다. 나아가 중국 시장상황을 검토해 오는 2009년 새 차종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기아차는 내년 중국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각각 10만대씩 총 20만대를 생산·판매하는데 이어 제2공장이 완전 가동되는 오는 2010년에는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생산능력 43만대에서 1만대 초과하는 44만대를 생산하고 전체 물량을 중국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중국 현지 맞춤형 전략모델 투입,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기아차 단독의 우수 딜러 육성, 스포츠 마케팅 등을 통한 기아차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의 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몽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2공장 준공은 기아차가 중국에서 메이저 자동차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며 "기아차는 중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지 맞춤형 차량을 개발중"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이번 제2공장 완공으로 중국과 슬로바키아에 연산 73만대 규모의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했으며, 오는 2009년 하반기 미국 조지아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103만대 해외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정유사 주유 카드 '잘보고 써야'

할인·적립 회사마다 달라 오히려 손해 볼수도

정유사마다 주유할인 신용카드를 받을 때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주유 할인이나 적립을 해줄 때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통보한 가격을 토대로 하는데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자칫하면 싼 주유소를 찾아가다가 오히려 비싼 값을 치를 수 있다.

가령, SK에너지의 지난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

641.63원으로 GS칼텍스의 1천639.59원보다 비싸지만 신용카드 할인/적립을 받으면 오히려 GS칼텍스보다 싸질 수 있다.

주유카드 고객이 휘발유 40리터를 주유했다면 신용카드사들은 일 반인들의 직박과는 달리 이를 그대

로 인정하지 않고 총 금액을 정유사의 기준가격으로 나누어 다시 주유량을 산출한 뒤에 이를 토대로 할인/적립을 해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기준 가격이 정유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즉, 리터당 80원 할인되는 카드

로 휘발유 40리터를 주유했을 경우 SK에너지에서 총 금액은 6만5천665원인데 이것을 현재 기준가격인 1천542원으로 나누면 42.58리터가 되고 여기에다 80원씩 모두 3천407원을 할인받고나면 실제 내는 금액은 6만2천258원이다.

GS칼텍스에서는 총 금액이 6만5천584원으로 일단은 SK에너지보다 82원 싸지만 기준가격인 1천617원으로 나누면 주유량이 40.56리터가 되므로 3천244원이 할인돼서 실제 비용은 6만2천339원으로 오히려 80원 비싸진다.

/연합뉴스

전남지역 産團 조성 쉬워진다

道, 승인절차 간소화 정부에 건의

전남도는 지난 8일 국내외 투자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까다로운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는데 약 36개월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42개 사항에 대한 인·허가 등을

의제(擬制)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위한 협의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절차보다 더욱 복잡하다.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을 관계법에서 30일로 정해져 있는데도 실제로는 6개월 이상이 걸려 오히려 의제해주지 않고 개별법으로 인·허가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고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관계 공무원들

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요 기간을 20개월 이내로 단축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지정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각종 평가 등을 거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로 '산업단지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 이번에 법과 제도를 더욱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우수 중기 상품전

광주신세계 16일까지

광주신세계는 "10일부터 16일까지 '제1회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광주신세계,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디자인센터 등 세 기관이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상품전에는 공산품 제조업체 4개, 식품제조업체 12개 등 16개 기업에서 150여 가지의 우수상품들을 선보이게 된다.

/정필수기자 bungy@

"中 사업맨 8字 든 날 택해야"

중국인들 '8' 선호 감안 기아차 준공식 택일

중국인들이 숫자 가운데 '8'을 선호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돈을 벌다'는 뜻을 가진 중국어 '發財'(파차이)의 발음이 숫자 '8'과 같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8'을 좋아하는 것이다.

지난 8일 중국 장수성(江蘇

省) 연청시(鹽城市)에서 개최된 기아차 중국 제2공장 준공식에서도 중국의 숫자 '8' 선호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준공식이 '8일' 개최된 점이 그렇다. 기아차 중국 공장은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은 휴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인 '8일' 준공식을 가진 것은 숫자 '8'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준공식 시간에서도 역시 이를 엿볼 수 있었다. 통상 한국에서의 행사 시간은 정각에 시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아차 중국 제2공장 준공식은 이곳 시간으로 오전 11시48분 개최됐다.

당초 준공식 시간은 숫자 '8'이 포함된 오전 11시8분이었으나, 행사 내외빈 등의 사정으로 지연된 것이다.

/연합뉴스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원칙외선 물리치료 발열효과! 인기 하터에도 별름이 있습니다.

원칙외선 프라아임 발열효과! 혈액 순환과 통증을 함께 난방까지

고효율의 특허 기술력! 냉난방 저감 장치 채택

무등산업

10대(02)-7095-911-601-701

11월 20일 오픈성업중

강우지구 추악의 콘서트

랜드피아 7080

휴일평매만·저수 교체수업

영성음 특강유대

이대(06)381-5542, 382-5542